

# 일제강점기 한국건축의 식민성과 근대성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식인과 건축인들은 식민지적 제약 가운데 당대 최신의 세계적 건축경향을 습득하고자 노력했고, 미약하나마 이를 바탕으로 작업하며 경성의 건축에 대해 논평했다. 여기에는 식민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에서는 건축역사와 비평 사이, 그리고 건축학과 역사학 사이의 소통을 통해 이 논의를 진행하고 심화시키고자 한다.

- 일시: 2026년 1월 27일(화), 오후 3시~6시
- 장소: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6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87)
- 주관: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 + 고려대학교 건축역사연구소

**사회: 김현섭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 위원장)**

3:00~3:15.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 소개

3:15~3:50. 발표 1

**전진성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근대수도 경성의 식민성과 근대성

3:50~4:25. 발표 2

**이상헌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건축의 근대성과 탈식민성 문제

4:25~5:00. 발표 3

**정만영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 ‘한국 근대건축’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5:00~5:10. 휴식

5:10~6:00. 종합 토론. 김현섭(좌장)/ 전진성, 이상헌, 정만영/ 청중



\* 대한건축학회의 2026년 1월 월례세미나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의 한국연구재단 과제(RS-2025-00514267)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 세미나 참가는 사전등록 선착순 30명 한정이며, 옆의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 문의: 대한건축학회 홍채연 프로(070-5038-4224), 고려대학교 건축역사연구소 최성광 연구원 (abcskson@naver.com)